

## “장로교회, 말씀 따르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 섬기자”

한장총, 9일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개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 환 목사, 이하 한장총)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롬 12:11)라는 주제로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을 개최했다.

한국 장로교회들의 연합체인 한장총이 연중 최대 행사로 치르는 '한국 장로교의 날'은 한국 장로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다시 확인하고, 회원교단 및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 진교 등을 위해 열리는 집회다.

◆“한국 장로교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자매”

대회장인 천 환 한장총 대표회장은 대회를 통해 “지난 2009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의 생일인 7월 10일을 장로교회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한국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모임이 올해 16회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했다.

천 대표회장은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다. 한국 장로교회의 하나 됨을 위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경건과 균형 잡힌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탈종교화의 심각한 도전과 교세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교회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와 개혁의 힘을 발휘했다. 실추된 교회의 권위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인으로서 성경

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했다.

준비위원장인 김홍석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는 환영사에서 “장로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장로교회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굳건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날 행사는 기념예배와 성찬식, 부흥기도회 및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식 순서로 진행됐다. 권순웅 목사(한장총 상임회장)가 인도한 기념예배에선 변세권 목사(예장 합신 총회장)가 기도했고, 김정우 목사(예장 합동총신 총회장)의 성경봉독과 남서울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이자 연동교회 원로인 이성희 목사가 설교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교회(여호수아 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 목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한국교회는 성경적 교회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 본질로 돌아가 성경적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차별되어야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라 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 버려야 하며,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 구별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자”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장총 대표회장 천 환 목사가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수상자들. (왼쪽 두 번째부터) 이승구 교수, 이재호 목사, 서일권 장로. ©김진영 기자

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의 표어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롬 12:11)이다.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이것이 말씀을 좇아가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에 나 없이 들어가는 교회가 다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다니엘처럼 웃 굶지 않고 기도”

이어 이성희 목사가 집례하고 한장총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찬식이 거행됐고, 헌금이 있는 뒤 부흥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

회에서는 순환보 목사(세계로교회)가 부흥 메시지를 전했다. 공동대회장들인 김중우(예장 호신 총회장)·최원길(예장 개혁총연 총회장)·송동원(예장 개혁신 총회장) 목사가 장로교회와 다음세대, 통일을 위한 주제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한장총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정서영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축도했다. 부흥 메시지를 전한 순환보 목사는 “모

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후대에는 이런 모임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순 목사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굶지 않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라라 믿는다. 여기 모인 우리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켜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식에선 김홍석 목사(준비위원장, 예장 고신 총회장)의 사회 아래 대회장인 천 환 한장총 대표회장의 대회가 있었고,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이 마련됐다. △교육 및 신학 부문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석좌) △선교 및 문화 부문 이재호 목사(주바라기선교회 대표) △복직 부문 서일권 장로(제5영도교회 시무)가 수상했다.

이어 이 철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류승동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다음으로 임병무 목사(예장 대신 총회장)가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남서울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선언문에는 △예배 중심의 신앙 회복 △나바다의 개혁 △장로교회의 연합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 실천 등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이후 파송의 노래 및 김성수 목사(예장 호신 총회장)의 파송의 기도, 정성열 목사(운영위원장)의 알림과 참석자들이 전체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관련기사3면 김진영 기자

## “국회, 3권 분립 무시하는 입법 폭주 중단하라”

수기총 등 단체들, 성명 통해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인총연합회 등 단체들이 9일 “3권 분립 무시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 중단시키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입법행정사법으로 3권분립(三權

分立) 체계를 갖춘 것은,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견제의 수단으로 국회는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정부는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권’을, 법원은 ‘법률 심사권’, ‘명령, 규칙 심사권’ 등을 갖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작금의 국회는 습관적으로 탄핵권을 남발할 뿐만 아니

라, 입법부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법안들을 쏟아냄으로써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간 탄핵안을 13번을 발의했다. 그 면면들을 보면, 입법부 권한 남용과 오용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야당이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와 방탄,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 권력

으로 행정사법입법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 압승으로 가지게 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여야 합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민주당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소위 3권분립의 헌법 정

신을 훼손하는 법안 20여 건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사행령)·총리령에 관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까지 넘보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사법부의 독립적 재판 진행에 입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3권분립의 송고한 헌법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지 아니하

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3권분립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고 3권분립

의 체계 아래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사법부는 법대로 3권분립을 집행하고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여 입법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이 되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체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라며 “대통령과 3권분립이 흔들리면 국민 안전과 안보가 가장 크게 위협 받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현대건설**

오피스텔 165실

펜트하우스 타입 오피스텔  
● RooF  
● 17F

2실 및 3실 타입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  
● 4F  
● 3F  
● 1~2F

커뮤니티 시설  
● 4F  
● 3F  
● 1~2F

복층 연계형 상업시설

출퇴근 30분 시대!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개발로 지역기차상승 기대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수도권 전지역 1시간내 이동 가능

1층: 버스·택시 정류장 | 지하2-3층: 공공 상업시설  
지하4층: 통합 대합실 | 지하5층: 광역철도(GTX-A/C)  
지하6층: 위례-신사 | 지하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삼성역 GTX-A: 운정-일산-삼성-동탄-평택  
·삼성역 GTX-C: 덕정-청량리-삼성-수원-천안-안산

파주 운정 ~ 삼성역: 26분 | 일산 킨텍스 ~ 삼성역: 23분  
양주 덕정 ~ 삼성역: 27분 | 수원역 ~ 삼성역: 26분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하1층 - 지하7층)

지하1층: 버스, 택시 정류장 | 지하2-3층: 공공 상업시설  
지하4층: 통합 대합실 | 지하5층: 광역철도(GTX-A/C)  
지하6층: 위례-신사 | 지하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유튜브에서 “생생분방통”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와 무관합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LIFE INFRA**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잠실종합운동장 인접
- 삼성동 생활편의와 대치동 명품교육을 함께 누리는 더블 생활권

**TRAFFIC**

-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수인분당선 등 인접
- 도심공항터미널 및 다양한 버스노선 등으로 편리한 대중 교통망

**VISION**

- 국제교류복합지구(예정), GTX-A/C(예정) 영동대로 복합환승 센터(예정)
- 전시, 컨벤션, 업무시설 등 강남중심업무 지구 (GBD)의 높은 프리미엄

1666-1691